

‘우리를 슬프게 하는 DJ아들’



서길원 大記者
세상읽기

호부견자(虎父犬子)가 크게 틀리지 않다. 제명된 채 무소속으로 국회에 남아 정치생명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그는 DJ의 아들이 아니다. 정치적 신념으로 갖은 탄압과 사형선고 까지 받아야 했던 아버지의 정신을 아들이 알지 못한다면 정치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홍걸 의원이 지난주에 긴급 최고위원회의의 만장일치로 제명됐다.

제명된 그의 한없는 욕심이 안타깝고, 그의 한없는 빈곤이 또 슬프다. 더욱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서술로 그를 설명해야 하기에 또 슬프고 안타깝다.

대한민국이 낳은 걸출한 정치인

이자 사상가인 DJ아들로서 그의 욕심은 강물처럼 흐르는 정의감이 있어야 했고, 그의 빈곤은 국회의원 세비도 많다고 여기는 청빈한 마음이었을 수는 없었을까하는 안타까움이다.

김 의원에게 제기된 의혹은 정치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성마저 의심케 한다. 때문에 그의 여의도 입성은 개인적 욕망이외에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다.

부와 권력을 함께 소유하고자 하는 개인적 욕망이외에는 그의 정치인 변신을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음이 슬프고 안타까움이다.

그는 지난 총선 때 3주먹을 신고 한 뒤 당의 다주먹 처분 방침에 따

라 강남 아파트를 정리했다고 밝혔지만 썩소였다. 처분의 방식은 매매가 아니라 아들에게 증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 술 더 떠서 세입자 전세금을 4억원이나 올린 것도 밝혀졌다.

이뿐만이 아니다. 10억원이 넘는 배우자의 아파트 분양권도 누락해 4주먹을 3주먹으로 축소 신고했다. 그는 분양권 누락 신고에 대해 신고 대상인 줄 몰랐다고 뉘우쳤다.

배우자 소유의 상가 지분도 총선 전후 크게 차이나 의혹이 피리를 물고 있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으로 남북경협주식을 보유한 것도 이해충돌 논란을 낳았다.

이 정도면 재주 많은 사업가이지 정치인이 아니다.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의심스럽다는 표현이 오히려 과분하다. 오죽했으면 당의 상징적 존재이자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민주당에서 상징적 존재의 아들을 최고위원 만장일치로 제명했겠는가.

그는 국회의원이 되기 전까지 이

렇다 할 직업을 가진 적이 없다. 그런 그가 100억원대의 자산가가 된 경위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시중에는 재산 출처에 DJ의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때문에 의혹이 더 커지기 전에 민주당이 꼬리 자르기를 한 것 아니냐는 추측도 나온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비서 출신인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당원의 지적대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은 기다리면 피할 수 있는 소나기가 아니다.

김한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김대중 대통령 임기 말에 발생한 김홍걸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을 떠올리며 “가장 곤혹스러운 일은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호 여사를 존경하고 따르던 많은 분들의 실망과 원망”이라고 지적했다. 맞는 말이다. 제명된 의원 김홍걸이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그런 아들을 둔 DJ가 안타깝다.

호부견자(虎父犬子)가 크게 틀리지 않다. 제명된 채 무소속으로 국회에 남아 정치생명을 이어가고자

한다면 그는 DJ의 아들이 아니다. 정치적 신념으로 갖은 탄압과 사형선고 까지 받아야 했던 아버지의 정신을 아들이 알지 못한다면 정치를 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김 의원의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놓여있다. 정치인이 되느냐, 자산가가 되느냐의 선택이다. 아깝더라도 모든 재산을 김대중 기념사업회나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등에 기증하고 용서를 빈 뒤 국회의원 벼지를 유지하는 길과, 아깝더라도 국회의원 벼지를 떼고 재산을 유지하는 길이다.

어쩌면 그리 어려운 선택만은 아닐 수 있다. 어차피 이렇다 할 직장 생활을 한 것도 아니고 발품을 팔아 벼지를 단 것도 아닌 바에야 재산도, 국회의원도 노력 이상의 과분이 라 여긴다면 선택은 더욱 간단하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9일 제1회 청년의 날 기념식에서 “공정은 촛불혁명의 정신이며, 다 이루지 못할 수는 있을지언정 우리 정부의 흔들리지 않는 목표”라고 강조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공정’을 서른일곱번이나 언급했다.

대통령이 말한 ‘공정’은 누구에게나 타당한 보편적 가치이지 개인에 따라 달라지는 개별적 가치가 아니다. 김홍걸 의원이라 하여 다르지 않기에 국민들은 그에게 ‘공정 한가’라고 묻고 있는 것이다.

대통령을 위해서도, 민주당을 위해서도, 국민을 위해서도,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인 DJ를 위해서도 김홍걸 의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독일 시인 안톤 슈나크는 저 유명한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것들’이라는 수필에서 ‘울고 있는 아이의 모습’이나 ‘자동차에 앉은 출세한 부녀자의 좁은 어깨’에서만 슬픔을 느낀 것이 아니라 ‘무정한 나무에 떨어지는 백설’도 슬프게 한다고 했다. 그가 요즘의 세상을 본다면 ‘마스크를 쓴 어린아이’나 ‘중고시장의 새것 같은 집기’뿐만 아니라 ‘100억원대의 자산가에 국회의원까지 된 DJ의 아들’도 우리를 슬프게 한다’ 라고 썼을 법하다.

■ 본란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기고

‘한가위’ 안전의식도 풍성하게



최현경 /달양소방서장

유난히도 길었던 장마가 끝나고, 연이은 태풍이 지나가니 어느새 가을과 함께 추석이 성큼 다가왔다. 풍성한 한가위에도 안전사고 발생에 예외는 없다.

추석에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3가지 유형에 대해 알아보자.

첫째 벌 쏘임 사고이다. 추석에 성묘를 드리러 산소에 갔을 때 말발과 마주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벌 쏘임 사고로 119구급대가 이송한 환자는 1만6751명으로 집

계됐으며, 9월이 4664건으로 가장 많았다.

9월은 벌이 산란하는 시기로 벌침의 독성이 강해 굉장히 위험하다. 벌 쏘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벌을 자극할 수 있는 향이 강한 화장품과 향수 등의 사용을 자제하고 밝은 색상의 옷을 입도록 한다. 실수로 벌을 건드렸을 때에는 큰 동작을 삼가며 최대한 몸을 낮춘 뒤 손으로 머리와 목을 감싸고 신속히 20m 이상 벗어나야 한다. 벌에 쏘여 침이 피부에 남아 있을 경우 신용카드를 긁어서 제거할 수 있으며, 쏘인 부위에 얼음주머니를 15~20분간 대주면 붓기를 가라앉히고 통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둘째 화기 취급 사고이다. 대가족이 모이는 명절 연휴에는 가스불을 올려놓고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거나 TV를 보다가 깜빡하는 사례가 많다. 사전에 화재경보감지기를 설치하거나 작동상태를 점

검하고, 눈에 잘 띄는 곳에 소화기를 비치시켜 큰 불로 번지는 것을 예방해야 한다.

셋째 귀성·귀경길에 자주 발생하는 교통사고이다.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한 통계기록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추석 연휴기간동안 발생한 사고 건수는 1만 394건으로 211명의 사망자와 1만 4639명의 부상자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중에서도 연휴 전날 사고 건수는 822건으로 연간 사고 건수(일평균 607건)보다도 35%나 높았다. 원인 중 대부분이 졸음운전으로 밝혀졌는데, 장거리 운전 시 휴게소나 졸음쉼터에 들러 잠깐씩 눈을 붙이거나 껌 씹기, 교대로 운전하기 등의 방법으로 졸음운전을 예방하는 것이 좋다.

안전은 안전할 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스스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 대국민 모두가 풍성한 한가위를 맞이하기 바란다.

독자투고

한가위,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세요

민족 대명절인 추석이 며칠 앞으로 다가왔다. 2019년 추석연휴 기간에 발생한 화재는 전국적으로 총 294건으로 1일평균 73건이었으며, 인명피해는 17명에 달했다. 이중 추석 명절 가족과 친지들이 모여 즐겁고 행복해야 할 주거시설에서 발생한 화재가 119건(40.5%)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다.

가족들이 함께 하는 공간에서 화재 발생을 신속히 알려주는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화재에 대응하기 위한 소화기는 갖추어야 할 필수품이 되었다.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17년 2월부터 주택에 대한 기초소방시설(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그 해 6월부터는 화재 안전기준이 개정되면서 음식점·다중이용업소·호텔·의료시설 등의 주방에는 K급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되었다.

주방(Kitchen)의 앞 글자를 딴 K급

특성상 끓는점이 발화점보다 높아 불꽃을 제거해도 온도를 낮춰주지 못하면 다시 재 발화할 수 있다.

K급 소화기는 이러한 특성을 알고 기름표면에 순간적으로 유막층을 만들어 화염을 차단하고 식용유 온도를 낮춰 재발화를 방지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이번 추석에는 주택용 소방시설인 소화기와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준비해 고향집에 ‘안전’을 선물하는 효도를 실천하고 마음 든든하고 행복한 명절을 보내야겠다.

/장동신(순천소방서 119구조대)

기사제보,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 전화(062)363-8800 팩스(062)362-0078

2000년 11월 25일 창간(일간) | 등록번호 광주 가-8(2000년 11월 10일) | 호남매일 | www.honamaeil.co.kr

회장 김현재 | 발행·편집인 고계방 | 편집국장 최춘의

| | |
|----------------------------|-------------------------------|
| 대표전화 (062)363-8800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동 264-1번지) |
| 사 장 실 (062) 363-0027 | 편집국 장 (062) 362-0008 |
| 임 원 실 (062) 363-8448 | 정·경 부 (062) 362-6116 |
| 총 무 국 (062) 362-6336 | 사 회 부 (062) 362-6226 |
| 논 설 실 (062) 363-0005 | 문 체 부 (062) 362-6116 |
| 광 고 국 (062) 363-0005 | 지 역 사 회 부 (062) 362-6226 |
| 서울취재본부 (02) 783-8117 | 사 진 부 (062) 362-6226 |
| 인쇄취재포드린테크 (062) 943-0140 | 편 집 국(FAX) (062) 362-0078 |
| 구독료 만달 : 10,000원 / 1부 500원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

새 희망 새 언론 새 천년



푸른 언론의 길을 지향하는 호남매일과 같이 걸어가지 않으시겠습니까?



- 호남인과 함께 하는 신문
- 정도를 걸어가는 신문
- 공익을 생각하는 신문

- ▶ 구독신청 및 배달사고 : (062)363-8800
- ▶ 주소 :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166(신안 264-1)
- ▶ 기사제보·독자 의견 • TEL : (062) 363-8800 • FAX : (062) 362-0078
- ▶ 광고문의 • TEL (062) 363-8800
- ▶ 서울지사(취재본부) : 010-8803-1472
- ▶ 인터넷 참여 : <http://www.honamaeil.co.kr>
- ▶ E-mail : honamnews@hanmail.net honammaeil@naver.com

| | | | | | |
|-----------------|-----------------|-----------------------|--------------------|--------------------|--------------------|
| 지국안내 | 상무.....381-5310 | 문암.....521-4270 | 지사안내 | 화순...010-3100-0386 | 합평...010-4829-1181 |
| 총장.....223-4123 | 서부.....651-0004 | 오치.....261-9461 | 순천...010-9656-1383 | 영광...010-9660-5489 | 영암...010-4604-3742 |
| 무등.....224-4188 | 송암.....362-4102 | 문흥.....261-9462 | 광양...010-9656-1383 | 완도...010-5066-4708 | 진도...010-8525-4567 |
| 동부.....234-4235 | 농성.....362-4102 | 일곡.....573-3200 | 나주...010-3644-7272 | 장흥...010-5665-8354 | 해남...010-3471-6542 |
| 학동.....225-0651 | 빈월.....671-7276 | 동문.....525-8994 | 나주...010-3644-1309 | 강진...010-3775-2369 | 고흥...010-9186-5252 |
| 광천.....374-2120 | 봉선.....675-5530 | 두암.....266-1920 | 담양...010-3602-3550 | 장성...010-3637-6112 | 광산...010-7613-4320 |
| 화정.....374-3713 | 농성.....362-4102 | 침단.....971-1920 | 곡성...010-3647-6161 | 무안...010-5420-1920 | |
| 금호.....376-7153 | 중양.....521-5640 | 신창.....955-0451 | 구례...010-8597-0053 | 여수...010-3621-3322 | |
| 쌍촌.....371-9684 | 중흥.....433-1503 | 월곡.....941-9174 | 보성...010-3626-4776 | | |
| | 양산.....574-3745 | 송정리.....010-5524-3638 | | | |